

상서고, 26년 만에 전국체전 금메달로 정상 탈환!

단체전 금메달, 혼합복식 은메달, 개인단식 동메달

상서고등학교(교장 최우환)은 지난 13일(일)~17일(목)까지 경상남도 양산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대구광역시 대표로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했다.

상서고 탁구부는 단체전 금메달뿐만 아니라, 혼합복식에서 박예령(상서고 1학년), 김동현(심인고 2학년) 선수가 은메달, 개인단식에서 동메달(문초원 2학년)을 획득하며, 3개 종목(단체전, 혼합복식, 개인단식)에서 금, 은, 동 전 종목 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안았다.

단체전 전적은 1회전 부전승, 8강에서 경기도 대표(안양여고)에 4:1 승리, 준결승에서 강력한 우승후보였던 경북 대표(영천여고)에 4:2 승리로 결승전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는 대전 대표(호수둔여고)에 4:0으로 승리하며 1998년 제79회 전국체전 이후 26년 만에 정상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



상서고 탁구부 주장 신다미(3학년) 선수는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획득해서 너무 기쁘고, 함께 훈련한 상서고 탁구부 모두가 자랑스럽다. 항상 응원해주는 모든 선생님들과 상서고 친구들에게 너무나 감사드린다. 항상 성장하는 탁구선수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우환 교장은 "상서고 탁구부의 우수한 성적에 매우 기쁘고, 지도교사들과 선수들의 노력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증되어 더 뜻깊다."라며, "우리 학생들이 좋은 환경과 체계적인 지도 시스템 아래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상서고는 올해 3월부터 이어진 단체전에서 '제62회 전국 남녀 중고 학생종별 탁구대회' 우승, '제70회 전국 남녀종별 탁구선수권 대회' 준우승, '제40회 대통령기 전국 탁구대회' 우승 등 실력을 입증했다. <자료제공:상서고등학교>

유가중 '스마일마켓' 인성 키워 행복 학교 만들다

유가중학교(교장 김명희)는 지난 16일(수)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성숙, 사회성 함양을 목표로 '스마일마켓'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긍정적인 행동과 학교체육 활동 참여를 통해 얻은 상점으로 물품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학생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성취를 직접 체험하며

즐거움을 느꼈다. 특히, 학생회가 자율적으로 준비한 버스킹 공연이 함께 열려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으며, 학생들은 학생 자치의 즐거움을 만끽하며 더욱 활기찬 학교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

올해 학교체육 활성화 시범학교로 선정된 유가중은 전 교직원과 학생이 협력하여 ▲

학교체육, ▲회복적 생활교육, ▲학생 자치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성숙, 사회성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학교 폭력 예방에도 이바지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다.

김명희 교장은 "스마일마켓과 같은 행사를 통해 자율성과 성취감을 높이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회복적 생활교육과 학교체육 활성화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하고 긍정적

인 학교 분위기 조성해 '스마일 학교'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유가중학교>

<도라에몽>, <파워레인저 킹덤포스>, <알로스와 친구들>
가족과 함께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 채널

디지털 185번 ANIONE Animation

ANIBOX

디지털 182번 한일 동시

<원피스> 부터 <블루 아카이브>까지!
한일동시 애니메이션을 가장 빠르게 볼 수 있는 채널!